

## 영암 F1 오늘 역사적 개막

### 6억명이 지켜보는 스포츠...연습주행·예선 거쳐 24일 결선



#### 영암 F1 경주 일정

22일(연습주행)	
스타트	내용
오전 10시	연습주행 1
낮 12시35분	패독클럽 피트레인보행
오후 2시	연습주행 2
23일(예선전)	
스타트	내용
오전 11시	연습주행 3
낮 12시 5분	패독클럽 피트레인보행
오후 1시	Air Show
오후 1시30분	트랙 점검
오후 2시	예선
24일(결선전)	
스타트	내용
오후 1시10분	패독클럽 피트레인보행
오후 1시 30분	드라이버 퍼레이드
오후 1시 45분	그리드 이벤트
오후 2시 5분	Air Show
오후 2시 46분	애국가
오후 2시 49분	저속발전 제트쇼
오후 3시	결승
레이스 후	시상식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목포 평화광장에서 목포시민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1 Boom up Time'이라는 주제로 개막 축하행사 및 공식 개막식이 열렸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관련기사 2·3·18·19면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가 22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F1 대회가 개최된 지 6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F1 머신들의 폭풍의 질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 F1은 연간 400만명의 관중에 TV 시청자 수만 6억명에 달하는 메가급 이벤트다.

F1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법인 KAVO는 21일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2일 연습주행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의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세기 가 넘는 60년 역사를 가진 F1대회를 전남도에서 개최해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지사는 또 "F1 대회는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으로 아마추어 드라이버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면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레이싱팀을 만들고 F1 드라이버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 열리는 '201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의 19개 대회(라운드) 가운데 17번째로, 12만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암 서킷에서 열린다.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3일 오전 11시 연습주행에 이어 23일 오후 2시부터 1~10위 출발 순서를 정하는 예선전을 거쳐 24일 오후 3시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진다. 결승전은 서킷(5.615km) 55바퀴(총길이 308.825km)를 돌아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이번 대회에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마크 웨버(호주·레드불레이싱 팀·220점)를 비롯, 지난해 우승자 젠슨 버튼(영국·맥라렌·189점), 2008년 최연소 우승자인 루이스 해밀턴

(영국·맥라렌·192점), 2004년부터 2년간 정상을 지켰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206점), 최연소 F1 드라이버, 최연소 폴 포지션, 최연소 F1 우승 등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 레이싱·206점), '돌아온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54점) 등 세계 최정상급 드라이버 24명이 참가한다.

특히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상위 5명의 선수들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데다, 코리아 대회를 제외하면 두 차례 경주밖에 남아 있지 않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직선주도로(1160m)로 최고 시속 32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점 등으로 어느때보다 뜨거운 폭풍의 레이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추대통령 축하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에서 개막되는 것과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메일에서 "F1 자동차대회를 통해 전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준영 지사와 조직위원회, 전남도민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인의 가슴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진감 넘치면서도 안전한 경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F1 특수 함박웃음

### 전남 서남권 외국인 손님 줄이어 광주까지 확산...호텔 객실 동나

영암에서 F1 대회가 열리면서 지역 호텔과 음식점, 와인바 등 서비스업계가 'F1 특수'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같은 '반짝 특수'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물론 광주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F1 특수의 최대 수혜처는 영암 서킷의 배후도시인 목포. 목포에서도 숙박업소와 음식점, 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하당 신도심이다. 하당신도심내 관광호텔과 모텔을 개조한 일명 'F1호텔'은 요즘 객실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인근 북항과 무안, 영암지역 모텔들도 빈방이 거의 없어 뒤늦게 찾은 사람들은 헛걸음을 하기 일쑤다.

음식점들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 점심이나 저녁때 하당의 유명 음식점에는 빈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F1대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F1레스토랑'에는 갈락탕과 불고기, 떡갈비 등 남도음식을 맛보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당의 와인바인 'W'에는 지난 주말부터 F1대회 관계자 등 외국인 손님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마치 유럽의 바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이 업소는 외국인들을 위해 종업원들의 복장을 검은색에 붉은색을 가미한 F1 스타일로

바꾸고 자체 제작한 F1 기념 수건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대표 김모(38)씨는 "간단한 이벤트지만 F1 분위기를 띄우고 매출도 올리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 숙박업계도 'F1특수'를 누리고 있다.

라마다플라자 호텔은 20~25일분 객실 120개가 이미 1년전 F1 관계자들로 예약됐다. 하루 50통이 넘는 예약문의 전화가 걸려 오지만 42개의 스위트룸까지 모두 예약이 만료돼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등파크호텔과 신양파크호텔, 프라도관광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F1기간 동안 무등파크호텔의 객실 110개 중 106개가, 신양파크호텔도 객실 87개 중 85개가, 프라도관광호텔 객실 101개 중 99개가 두 달 전에 이미 예약됐다.

호텔 방이 동나 만큼 시설이 좋은 모텔들도 방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심장분야 한 의료회사는 22일 광주에서 목포 호텔을 찾다가 방이 없어 장성지역 모텔을 숙소로 정했다. 20일 광주 모 호텔에서 기존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오자 객실이 예상대로 확보되지 않아 확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했다. /양수현기자 yang@

## 日 나옴시마 미술기행 오늘 출발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 일보사와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용서)가 공동으로 기획한 일본 나옴시마 지쿠(地中)미술관 문화여행단이 22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했다.



이번 문화여행은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낙원으로 거듭난 일본 나옴시마 지쿠(地中)미술관과 이우환 미술관, 오하라 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클래식 모네, 앤드류 홀 등 거장들의 예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이번 여행에는 김용서 회장을 비롯한 광주미술관회 회원 20명과 작가, 일반 시민 등 40여명이

참가한다. 나옴시마 문화여행단은 22일 다카마시 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나옴시마 지쿠미술관~베네세 미술관~이우환 미술관~이에 프로젝트~오카야마 오하라 미술관~고라쿠엔 정원~오카야마 등을 관람한 후 25일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나옴시마=박현천 선임기자 jhpark@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목고
- 전교생 수능 최연령(영동)기숙사 신축
- 보따리 장학금 지급
- 2009 교과부 선정 영아너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940-8800

### 진돗개, LA 경찰견 된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경찰견이 될 길이 열렸다. 21일 진도군과 전남대 진돗개명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25~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 경찰견 전문가 2명이 진도군을 방문해 진돗개가 경찰견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LA경찰국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경찰견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를 훈련하고 경찰견으로 이용할 기회가 갖게 돼 아주 영광"이라고 경찰견 전문가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경찰견 전문가들은 진도군을 방문해 진돗개 20~30마리를 살펴본 후 생후 2~3개월 미만 2~4마리를 미국으로 데려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징
  1. 공통: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